

이적설에 엇갈린 반응...불편한 김민재·웃는 이재성



김민재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훈련 중인 축구 스타 김민재(나폴리)와 이재성(마인츠)이 맞닥뜨린 이적설에 대한 반응이 사뭇 다르다. 김민재는 이적설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반면 이재성은 이적설 자체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김민재
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적설은 그냥 뉴스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계속 이적설이 나온다”며 “이제는 팀에 더 집중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고 싶은데 슬쩍하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는 그러면서 “외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재, 이적설에 불쾌감...유럽 언론 보도 증폭

EPL 입성 노리는 이재성, 이적설 분출에 미소

김민재의 기대와 달리 이런 발언 자체가 이적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김민재의 발언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유럽 매체들은 김민재가 이적을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대서특필했다.

김민재를 영입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유럽 이적시장 소식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도 26일 누리소통망(SNS)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에 관한 김민재의 반응을 전하면서 관심을 드러냈다.

나아가 프랑스 레퀴프는 파리생제르맹이 김민재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가

지 내놨다. 김민재의 기대와 달리 이적설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민재로서는 급할 게 없다. 나폴리의 리그 우승이 유력한 상황에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높은 곳에 도달할수록 자신의 몸값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적을 하더라도 더 높은 연봉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반면 이재성은 이적설이 나오는 것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재성은 지난 26일 파주NFC에서 기자들과 만나 EPL 이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도 “후반기에 잘 해서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게 제가 바라는 일이고 여름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제가 바라는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성이 월드컵 이후 맹활약을 이어가자 프리미어리그팀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코너 갤러거를 대체할 선수로 이재성을 지목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인츠 감독이 나서서 이재성이 팀에 꼭 필요하며 이적설을 진화하기도 했다.

30세를 넘긴 이재성으로서는 이번이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재성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반가운 측면이 있다. 설사 이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이적설은 현 소속팀 마인츠와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김민재와 이재성이 이적설에 정반대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두 선수의 행보가 주목된다.

뉴시스



전남 여수시청 육상팀 김은미.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여수시청 김은미, 인천국제하프마라톤 1위

1시간 14분 57초

전남 여수시청 육상 김은미가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여수시청 육상팀 김은미가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여자부 최성상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은미는 국제·국내 엘리트 부문에 참가해 인천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캠퍼스타운역, 송도국제대로, 동막역사거리, 인천문학경기장 동문사거리를 거쳐 인천문학경기장으로 돌아오는

21.095km 구간을 1시간 14분 57초에 주파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2위는 1시간 18분 01초를 기록한 임경희(삼척시청), 3위는 1시간 19분 55초의 김미정(전북체육회)이 차지했다.

또 심귀철 여수시청 육상팀 코치는 여자 국내 엘리트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대한육상연맹 등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외 선수 약 1만여명이 참여했으며 국제·국내 엘리트 부문(하프코스)과 마스터스 부문 하프코스, 10km, 5km 건강달리기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여수=김현근 기자

오타니, 7812억원 가치...빅리그 구단 쟁탈전 가속화

일본·미국 언론 “오타니, 10년 6억 달러 가치”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의 쟁탈전이 가속화 해 몸값이 6억 달러(한화 781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산케이스포츠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평론가 후쿠시마 료이치는 “에인절스는 그동안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때문에 오타니의 큰 무대 경험도 거의 없었지만, WBC 같은 큰 무대와 단기간에 투타에 걸쳐 활약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다.

산케이스포츠는 미국 외신들도 오타니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ESPN의 MLB 전문가와 애널리스트 5

명이 메이저리그 랭킹 100위의 선수를 뽑았다. 랭킹 3위는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 2위는 마이크 트라웃(에인절스), 1위는 오타니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오타니가 1등을 했다는 것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WBC에서 활약을 보면, 오타니는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임이 분명하다. 5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기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CBS 스포츠는 ‘오타니에 6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특집 기사에 “오타니는 40홈런을 날리고, 사이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많은 지출에 소극적이었지만, 예의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2월 WBC를 앞둔 상황에서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최초 6억 달러의 선수가 될 수 있는냐”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며, 오타니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구단으로 LA 다저스, 뉴욕 메츠, 양키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여러 구단이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평론가는 “오타니는 타자로도, 투수로도 초일류 선수이다. 계약기간 10년 기준 투수로 3억 달러, 타자로 3억 달러 총 6억 달러의 대형 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는 가치의 선수다”고 평가했다.

KBO 올스타전, 16년만에 부산서 개최

2023년 KBO 올스타전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개최된다.

KBO(총재 허규연)는 27일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리그 규정,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사회에서는 2023 KBO 올스타전(7월15일 예정)을 사직구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직구장의 올스타전 개최는 2007년에

동일한 부산으로 부산자 명단 등재 연장 신청 시 기존 신규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규정을 1회에 한해 추가 진단서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장 가능하게 개정했다.

또한 기존 규정은 엔트리 말소일이 부상자 명단 등재 시작일이었으나, 선수의 부상 경과를 지켜본 이후 등재할 수 있도록 해당 선수의 마지막 경기 출장 다음날로부터

감독·코치·선수 출전 수당 인상...최고 수비상 신설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 간소화·등록일 소급 적용

개최된 이후 16년 만이다. 올스타전 감독, 코치, 선수의 올스타전 출전 수당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KBO 수비상을 신설한다. 리그 차원의 공식 수비상 제정으로 수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그 수비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KBO 수비상(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후보 수상자 선정 등은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 간소화 및 등록일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3일까지 엔트리 말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후 명단에 등재된 경우 마지막 출장 다음날로 명단 등록 시작 일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리그 경기력 및 국가대표팀 경쟁력 향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KBO와 10개 구단은 2023 WBC 등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 올린 것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갖고 리그 경기력과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자농구 정규리그 MVP...변준형 vs 김선형 2파전

변준형, 1위 프리미엄 핵심 축...베테랑 김선형, 맹활약 속 개인기록 우세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오는 29일 최종전을 앞둔 가운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자리는 변준형(27·인삼공사)과 김선형(35·SK)의 2파전 양상이다.

변준형은 정규리그 1위에 오른 인삼공사를 진두지휘했다. 개막부터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1위팀의 ‘코트 위 사령관’이다.

베테랑 김선형은 팀 내 핵심 자원 최준용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자필 워너와 원투펀치를 이루며 시즌 막판 무서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SK는 최종 6라운드에서 8전 전승을 달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규리그 1위팀에서 MVP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기자단 투표로 선정되는 만큼 여러 요소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준형은 이번 시즌 53경기에 출전해 평균 29분42초를 뛰며 14.1점 5어시스트 2.7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어시스트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승부처에서 장기인 스텝백 3점슛과 돌파에 이은 마무리로 해결사 역할도 자주 했다.

김상식 인삼공사 감독은 ‘MVP 자격이 있는 선수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변준형 아닌가. 와이어 투 와이어로 1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베테랑 오세근(인삼공사)도 “정규리그 1위 팀 선수 중에서 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에서 나와야 하는 게 맞다”며 후배의 MVP 수상을 기원했다.

김선형이 시즌 막판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김선형은 53경기에서 평균 30분26초 동안 16.1점 6.7어시스트 2.7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국내선수 득점 부문 3위, 어시스트 부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서른다섯이라는 나이를 잊게 할 만큼 화려하고 빠른 공격 농구로 팬들의 시선을 즐겁게 했다.

무엇보다 SK가 5-6라운드에 걸쳐 최근 17경기에서 16승1패로 가파른 상승세를 달리는 있는데 중심에 김선형이 있다.

요약하면 팀 성적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변준형, 개인기록을 따지면 김선형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다. SK는 창원 LG와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종전에서 SK의 정규리그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2018-2019시즌 데뷔한 변준형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한 적이 없다. 첫 도전이다.

김선형은 2012-2013시즌에 정규리그 최고 자리에 올라 두 번째 수상에 도전한다.

동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올해 출범한 동아시아슈퍼리그(EASL)에서 대결을 펼쳤다. 챔피언결정전에서 SK가, EASL 결승에서 인삼공사가 우승했다.